

한국 고대 고깔과 종이접기

채금석 · 김소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명예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A study on Korean ancient conical hat(Kotgal) and the paper-folding

Keum-Seok Chae · So-Hee Kim[†]

Prof. Emeritus,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8. 6. 4 접수; 2018. 10. 29 수정; 2018. 12. 25 채택)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correlation between Kotgal and paper-folding.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meaning and history of Korean ancient Kotgal and then investigates relationship between Kotgal and Korean paper-folding culture which has been inherited in various ways. Throughout the study, literature research and analysis have been conducted along with empirical studi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told that Kotgal was used as a trident hat symbolizing the sky, land, and man, whereas Korean paper-folding is known as closely related to the folk beliefs which had existed since ancient times. From ancient times, the Korean ancestors expressed the Three Gods representing beauties of the nature, 'sky(Chun), land(Ji) and man(In)' on the conical hat and prayed for their wish to the heaven. Second, Kotgal has been evolved in various ways from ancient times through Goryeo and Joseon Dynasty to present. The form of Kotgal has begun with folding and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origin of Korean paper-folding, which is the Korean traditional craft. Third, the paper-folding tradition of Korea has been variously applied in the Korean culture such as rituals, life crafts and plays and expresses the unconventional philosophical concepts unique of Korea. In conclusion, this study evidently shows that the Korean philosophical ideas behind Kotgal which originated from ancient paper-folding are scientific and systematic.

Key Words: ancient Korea(고대 한국), conical hat-Kotgal(고깔), paper folding(종이접기)

[†]Corresponding author ; So-Hee Kim

Tel. +82-10-6597-1121

E-mail : chicsohee@gmail.com

I. 서론

1. 연구의 목적

한국 복식문화에서 고깔은 상고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우리 민족의 상징적 표상으로 우리나라 관모(冠帽)의 고유 형태인 변형(弁形) 관모의 시원이다. 고깔(갯갈)이란 ‘변(弁)’의 우리말 풀이로 승려나 무당 또는 농악대들이 머리에 쓰는 모두(帽頭)가 뾰족하게 생긴 모자를 의미(김진구, 1995)하며 고대(古代)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고깔은 직물이나 종이 등을 접어가며 만들어지며 여기에서 한국 종이접기의 원류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종이접기 전통은 한국문화 속에 의식, 공예, 놀이 등 생활 전반에 걸쳐 활용되었으며 고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종이접기는 사각형을 시작으로,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종이 면(面)을 접어 뒤집거나 비틀어 돌리는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비시원(比始原)적인 한국 고유의 사상체계를 표현한다(왕길환, 2017). 이는 고대부터 우주를 표상화한 조형 기법으로 면을 휘고, 꼬고, 비틀어 전후(前後), 좌우(左右), 상하(上下), 내외(内外)도 없는 비정향(比定向)적 성격을 다루는 현대 과학의 비유클리드 기하학적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채금석, 2017b). 이를 통해 한국 상고시대부터 전해 온 종이접기 문화에 내재된 사유체계가 얼마나 과학적인가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고깔과 종이접기에 대해 알아보고 그 안에 담긴 한국 전통사상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한국 고깔의 역사를 시대별로 고찰하고 삼각형상의 고깔형 관모가 갖는 의미를 찾아본다. 셋째, 다양하게 전승되어 오는 한국문화 속 종이접기에 대해 알아본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고깔의 의미와 역사, 종이접기와 의 관계를 한국 고대 국가인 고조선, 부여, 삼한,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선행 연구 및 고서기록, 복식 및 철학, 미학, 문학, 예술 관련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문헌 연구 외에 한국 전통복식 및 관련 유물 시각자료를 참고하여 고대 한국의 고깔과 종이접기 문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고깔

1) 고깔의 의미

고깔(그림 1)은 승려나 무당 또는 농악대들이 머리에 쓰는 모자 위 끝인 모두가 뾰족하게 생긴 모자를 뜻한다. 고깔의 고어인 ‘갯갈’이란 말은 조선시대에 모(帽), 관(冠), 락(屨), 건(巾), 책(幘), 두면(痘面) 등으로 사용되어 현재의 고깔이란 의미보다 광범위한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현대에 와서는 그 의미가 끝이 뾰족하게 접어서 만든 일종의 모자 이름으로만 남아 있다(김진구, 1995).

‘갯갈’의 ‘갯’은 첨각(尖角)을, ‘갈’은 관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의 형상과 일치한다(양진숙, 2005). 따라서 고깔은 삼국시대 이래 우리나라 관모의 고유 형태인 변형 관모, 즉 절풍(折風)의 시원으로, 고려에서 조선(그림 2)까지 이어지면서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2) 고깔과 한국 문화, 하늘을 향한 마음-천신(天神), 경천(敬天)사상

예로부터 동-서양 모두 하늘에 대한 경외심으로 하늘에 가까이 오르고자 하는 염원이 있었다. 예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비롯해 고딕 시대의 하늘로 높이 솟은 성당들이 그 예이다. 특히 고딕 시대의 성당을 보면, 기독교 건축에 있어 일차적 완성을 이룬 인간은 증폭을 통해 신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가려 했는데 하늘을 향해 높이 오름으로써 신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믿음으로 건축을 통해 하늘을 향한 양식을 만



〈그림 1〉 고깔

(출처: doopidea,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61263&cid=40942&categoryId=31543>)



〈그림 2〉 김홍도 점괘, 18C, 조선

(출처: 조선시대 관모사전(p. 30) 양진숙, 2005, 서울: 화신문화)

들어 낸 것이다(임석재, 2006).

한국 역시 고대부터 하늘을 섬긴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고대시대 한국 사람들은 매년 봄·가을로 열흘 동안 선남선녀들을 모아 점찰법회(占察法會)를 열어 옷마름질법(재단법)을 연구했으며, 이 법회를 이끄는 선도성모(仙桃聖母)는 기도를 통해 하늘의 신들과 교감하면서 터득한 직조기법으로 붉은 비단을 직조하여 그의 남편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채금석, 2017a). 이를 통해 고대부터 우리 옷은 우주의 이치를 통찰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해석하여 그 원리로 만들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고 직조까지 할 수 있는 선진 복식문화를 누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자연의 삼라만상은 모두 하늘의 뜻에서 비롯되고 그 생명이 전달되어 천지 만물의 존재가 창조된다고 보았다. 이는 고조선에서부터 부여, 삼한,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에 이르기까지 나라 차원에서 영고(迎鼓), 동맹(東盟), 무천(舞天)과 같은 하늘에 제(祭)를 올리는 의식이 행해졌다는 『위지(魏志)』, 『후한서(後漢書)』 등의 문헌 기록을 통해 고대 한국이 하늘에 얼마나 큰 뜻을 두고 있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한국의 고대 경전인 『천부경(天符經)』은 우주만물의 천지창조와 생성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우주의 구성 체계는 천지인(天地人)으로, 하늘은 양기의 팽창력의 시간, 땅은 음기의 수축력의 공간으로 이 둘의 만남에 의해 생명체-사람이 조화된다고 보았다(채금석, 2017b). 천부경은 이와 같은 천지인의 우주원

리를 수리(數理)로 풀어 설명하고 있는데, 천은 수리 일(一)로 원(圓:○), 지는 이(二)로 방(方:□), 인은 삼(三)으로 각(角:△)을 가리킨다(고하수, 1997). 즉, 원방각(圓方角)은 곧 천지인-하늘, 땅, 사람의 삼재(三才)의 수리의 조화를 말하며 이는 바로 하늘과 우주를 바라보고 우주의 이치를 형상화시킨 것이다. 여기에서 각(角:△)형은 삼점(三點, •••)의 원리로 사람, 생명체(生命體)를 의미하며 고깔은 땅을 바탕으로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채금석, 2017b)

이처럼 삼각의 고깔 형태는 고대부터 하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인체에서 가장 하늘에 가까운 머리에 이를 형상화시킨 모습은 고대부터 두식과 관모로 가장 많이 표현되었다.

2. 종이접기

1) 종이접기의 의미

종이접기란 종이를 접어서 새나 옷·배·꽃·투구 같은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자 놀이를 의미하는데 손에서 손으로 전송되어 왔기 때문에, 그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종이의 발명·보급과 더불어 자연적으로 시작되었으리라 추정된다(‘종이접기’, 두산백과). 한반도 종이의 기원은 1963-1965년 평양 정백동 2호 고분인 고상현(高常賢) 묘에서 종잇조각과 함께 영시 3년(永始三年, BC 14년)이라는 연대기가

수록된 양산대가 출토됨으로써 BC 1C 이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신성림, 2012). 이후 고구려 영양왕 21년(AD 610년) 사신으로 간승려 답장을 통해 제지술과 종이 문화가 일본으로 전해졌다(이승철, 2005). 이와 같이 종이를 일본에 전한 것은 고대 한국이었고 따라서 한민족의 종이접기 역사는 일본보다 앞서 있었을 것이다.

한민족은 기원전 전래된 종이를 이용하여 주술(呪術)용이나 의례(儀禮)용으로 종이접기를 이용하였으며, 종이접기의 용어로는 접는다는 의미의 접(疊)이라는 단어와 접지(摺紙)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었다(전철, 2015).

2) 종이접기와 천지인

한국문화에 나타나는 다양한 종이접기 기법은 사각형을 시작으로, 사각형과 삼각형의 종이를 접고 비틀고 돌려가면서 주로 기하학 형태를 이룬다. 다시 말해 방형의 평면성을 시작으로 삼각형과 원형의 공간성의 조형감을 창출하는 천·지·인·우주의 공간세계를 형상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대부터 종이접기 기법을 통해 만들어진 고깔부터 접선(摺扇), 색실첩, 옷본 등을 비롯한 종이접기 기법은 면을 접어 뒤집거나 비틀어 돌리는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비시원성의 한국 고유의 철학적 사상체계를 표현한다. 즉 종이접기는 고대부터 우주를 표상화 한 조형 기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종이접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전술한 한(韓)의 비시원적 성격으로 천지인의 원방각의 평면적 형태를 사용한 평면 구성과 비구조적 구성으로 3차원의 입체적 조형을 형성하며, 면을 휘고 비틀면서

생기는 공간의 가변성을 추구한다.

Ⅲ. 한국 고대 고깔의 역사

1. 고조선·부여

고조선에 관한 기록인 『사기(史記)』 조선 열전에 “위만이 조선에 입국할 때 추결만이복(魑結蠻夷服)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우리 수식(首飾)인 ‘상투’를 말하는 것으로 남자의 정수리에 하늘을 향해 높이 솟은 상투머리 모양(그림 3, 4)은 하늘에 보다 가까이 하고자 하는 기원의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고대부터 널리 정형화된 상투형의 머리 양식을 따라 고대 한국에서는 상투머리를 덮는 폭이 좁고 높이가 있는 변이나 절풍 등 다양한 형태의 고깔형 관모를 착용하였다(채금석, 2017a).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동명왕편(東明王篇)>에는 “머리에는 조우(鳥羽)의 관을 쓰고 허리에는 용광(龍光)의 칼을 찼다.”는 기록이 있다. 조우관은 변형모(弁形帽)에 새의 깃을 꽂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 변형모는 ‘弁’이라는 글자 그대로 두 손을 합장한 것과 같은 고깔모양(그림 5)이다. 이 조우관의 착용자로 기록된 북부여의 시조 해모수는 제사장의 역할을 겸한 제정일치(祭政一致)의 인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변형모와 함께 새의 깃털을 관에 끼워 넣는 풍습은 인간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새를 형상화한 고대의 신조(神鳥)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채금석, 2017a).

이 같은 관모는 고조선 청동기문화층에서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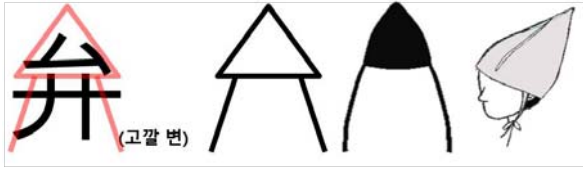
〈그림 3〉 금으로 만든 동부여의 가면과 모사도

(출처: 한국복식문화-고대 (p. 127) 채금석, 2017. 서울: 경춘사)



〈그림 4〉 고구려 삼실총 인물 상투머리

(출처: 한국복식문화-고대 (p. 134) 채금석, 2017. 서울: 경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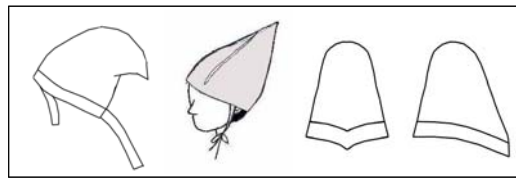
〈그림 5〉 변형모의 형태

(출처: 한국복식문화-고대 (p. 178) 채금석, 2017, 서울: 경춘사)



〈그림 6〉 서포항 유적 청동기문화층 출토 남자 토용

(출처: 한국복식문화-고대 (p. 115) 채금석, 2017, 서울: 경춘사)



〈그림 7〉 삼한의 변(弁)과 책(幘) 유추

토된 서포항 유적 남자 토용(그림 6)과 같이 일찍이 고조선시대부터 착용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6〉의 토용은 머리 위로 하늘을 향해 위가 높고 끝이 각진 관모를 쓰고 있는데, 이는 정수리 부분에 높게 솟은 상투머리에 쓰는 관모로는 최적의 형태이다(채금석, 2017a).

2. 삼한

『삼국지(三國志)』에 “마한 사람들이 의(衣)·책(幘)을 좋아하여 하급관리들이 조정에 나갈 때는 의책을 빌려서라도 착용하였다”라는 기록을 통해 삼한에서는 예를 중시하여 관리자들의 관모착용은 필수이고 일상적으로 쓰개류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채금석, 2017a). 절풍과 더불어 문헌에 나타난 최초의 쓰개인 책은 두발 또는 상투를 덮기 위한 두건 모양의 관모로 뒷부분이 삼각형을 이룬다고 한 것을 보면(류은주 외, 2003) 변과 책은 유사한 쓰개류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머리 정수리가 뾰족한 삼각형의 책을 썼다는 것은 머리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고대 남자들의 머리 모양은 추결(椎結), 괴두노계(魁頭露紒)라 하여 정수리에 머리를 묶어 틀어 올린 상투머리가 일반적이었으므로, 이 상투머리에 쓰기 편한 관모 역시 정수리가 뾰족해야만 했을 것이

다(채금석, 2017a).

다산 정약용은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변진고(弁辰考)에서 변한의 변자는 뾰족한 ‘弁’, 즉 ‘고깔’을 좋아하여 만들어진 이름이라 언급하며, 이 고깔 모양의 관모를 쓰는 풍습은 이후 가야에까지 이어졌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의 형태는 삼한의 ‘액유각인(額有角人)’ 설화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경상북도 고령에 전해지는 이 설화는 변진 12개국 중의 하나인 미오사마국(彌烏邪馬國) 왕자가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 일본까지 건너갔다고 하는 이주도래담(移駐渡來談)으로 이는 『일본서기』에도 등장하며, 배를 타고 온 액유각인을 가야의 왕으로 기록하고 있다(김광순, 2006). ‘액유각인’이란 머리에 뿔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써, 이는 당시 변진사람의 두상에 쓴 관모 전면(前面)이 각형(角形)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박선희, 2006) 그 형태는 〈그림 7〉과 같이 유추된다.

3. 가야

진술한대로 변한의 고깔모양의 관모를 쓰는 풍습은 가야에까지 이어졌으며 가야는 가나(駕那), 즉 고깔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가야 사람들이 끝이 뾰족한 관책(冠幘)을 쓰고 다닌 데서 유래한다고 한다(채금석, 2017a).



〈그림 8〉

김해 대동면 덕산리 출토 가야 기마인물형토기

(출처: 한국복식문화-고대
(p. 245) 채금석, 2017. 서울: 경춘사)



〈그림 9〉

고령지산동 32호분 출토 가야 금동관

(출처: 한국복식문화-고대
(p. 245) 채금석, 2017. 서울: 경춘사)



〈그림 10〉
고구려
각저총
여인의 변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고구려편
(p. 95)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2000.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그림 11〉
고구려
개마총 절풍
쓴 무사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I-고구려편
(p. 123)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2000.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그림 12〉
고구려
개마총
조우관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I-고구려편
(p. 123)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2000.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그림 13〉
고구려
개마총
조우관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I-고구려편
(p. 123)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2000.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그림 14〉
고구려
삼실총 절풍
쓴 평민 남자

(출처: 한국복식
문화-고대
(p. 350) 채금석, 2
017. 서울: 경춘사)



〈그림 15〉
왕회도 -
조우관을 쓴
고구려 사신

(출처: 한국복식
문화-고대
(p. 350) 채금석, 2
017. 서울: 경춘사)



〈그림 16〉
고구려
진파리 1호분
출토
투각용봉문
금동관

(출처: 한국복식
문화-고대
(p. 346) 채금석,
2017. 서울: 경춘사)

가야의 유물인 김해 출토 기마인물형 토기(그림 8)나 경남 고령에서 발견된 금동관(그림 9)에서 이러한 고깔 형태를 찾아볼 수 있는데, 금동관의 경우 정면에 광배형 판모양의 장식을 하고 있으나, 그 형태에 있어 고깔과 같이 끝이 뾰족한 형태를 하고 있다(김정완, 이주헌, 2006).

4. 고구려

『남제서(南齊書)』에 따르면 고구려 귀인과 대관인(大官人)·관인들은 절풍을 썼으며 『구당서(舊唐書)』에는 고구려의 일반 서민들이 뾰족한 고깔형 관모인 변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지』, 『후한서』, 『양서(梁書)』, 『통전(通典)』에도 고구려 관인이 절풍건(折風巾)을 썼다고 하였으며, 『남사

(南史)』에는 관인이 절풍변(折風弁)을 썼다고 되어 있어 고구려의 절풍에 관한 많은 기록을 볼 수 있다. 운두가 솟아오른 삼각형의 고깔 모양은 양 옆에 끈이 달려 있어 ‘弁’자 그대로의 형상이다(그림 5, 7). 『북사(北史)』에 고구려인들은 모두 머리에 고깔과 같은 형태의 절풍을 쓰고 사인(士人)들이 쓰는 것은 2개의 새 깃을 꽂고, 귀인이 쓰는 것은 붉은 비단(紫羅)에 금은 장식을 하여 소골(蘇骨)이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삼국지』 고구려조에는 소가(小加)는 절풍을 썼는데, 그 모양이 변의 형태라는 기록이 있고, 『북사』에는 모든 사람들이 절풍을 썼으며 특별히 높은 사람의 절풍은 ‘소골’이라고도 부른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서 기록을 종합해 보면, 절풍변·절풍건·조우절풍·소



〈그림 17〉
부여 능산리 절터 사람 새김 기와편

(출처: 한국복식문화-고대 (p. 470) 채금석, 2017. 서울: 경춘사)

골 등은 모두 비슷한 고깔 형태의 쓰개로 고구려 감신총, 각저총(그림 10), 개마총(그림 11, 12, 13), 삼실총(그림 14), 무용총, 쌍영총 등의 벽화와 삼국사신을 그린 왕회도(그림 15)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인다(채금석, 2017a).

투각용봉문 금동관(그림 16)은 좁은 금동관을 아치형으로 세워 놓았다. 중앙 원형부에는 삼족오가, 좌측엔 봉황, 밑으로는 용이 투각되어 있는데, 하늘을 상징하는 태양이나, 용, 봉황 등이 투각된 것으로 보아 왕의 전용물로 생각된다. 태양이 이글거리는 타오르는 불꽃모양을 상징한 것으로, 이는 하늘의 자손임을 자처했던 고구려의 천손사상과도 연관이 있다(채금석, 2017a).

5. 백제

백제 관모 역시 고깔형태의 절풍과 여기에 새 깃을 꽂은 조우관이 대부분이며, 사용된 재료에 따라 얇은 비단인 라(羅)로 만들어 신분에 따라 색을 달리하였던 라관(羅冠), 금동으로 만든 금동관, 자작나무 껍질을 이용한 백화모 등이 있다. 부여의 군수리 유적 기와 조각에 그려진 관모 형태나 부여 능산리 출토 기와편(그림 17), 부여 관북리 출토 얼굴무늬토기편(그림 18) 등에서 보이는 관모 형태는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삼각 고깔형으로 모두 끝이 뾰족한 형상임은 상투머리를 고려한 고깔형의 절풍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성기 백제 고분에서 발굴된 금동관은 대부분 그 형태나 제작방법에 일정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고깔 모양의 변형 관모인 내관(內冠)과 대륜 형태에 입식(立飾)을 꽂는 외관(外冠)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변형 내관은 당시 상투머리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며 5세



〈그림 18〉 부여 관북리 출토 얼굴무늬토기편과 탁본-국립부여박물관 소장

(출처: 한국복식문화-고대 (p. 470) 채금석, 2017. 서울: 경춘사)

기를 전후하여 백제 사회에 이러한 금동관이 여러 지역에서 사용된 것은 이 시기에 주변국과 본격적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국가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왕족을 비롯한 지배층이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지배층의 권위를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채금석, 2017a).

백제의 금동관은 대외교류 과정에서 5세기를 전후하여 백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대가야와 왜(倭)로 전파되어 대가야와 왜에서도 백제와 유사한 관 문화가 형성된다. 백제식 관으로 추정되는 대가야 유물로 합천군 옥전 23호분 출토 금동관(그림 19)을 들 수 있는데 옥전 고분군은 대가야를 구성하였던 유력한 세력자들의 무덤으로, 복원된 금동관(그림 20) 형태를 보면 변형 관모의 몸체 좌우에 새 날개와 같은 형태의 입식이 부착되어 있으며 내부에 삼엽문(三葉紋) 형태가 투조(透彫)되어 있다. 이러한 백제적 양식의 관과 유사한 관이 6세기를 전후한 일본에서도 발견되어 당시 백제와 일본의 밀접했던 관계를 반증해준다. 일본 고분시대 구마모토현(熊本県) 에다후나야마(江田船山古墳) 고분 출토 금동관(그림 21)은 공주 수촌리 금동관(그림 22, 23)과 그 형태나 구조, 문양 구성이 유사하며 후쿠이현(福井縣) 주젠노모리(十善の森) 고분 출토 금동관(그림 24) 및 각지의 고분에서 발굴된 왜의 금동관 역시 백제적 관과 구조적 유사성을 근거로 백제계 관으로 분류되어 백제적 양식의 일본전파를 보여준다(채금석, 2017a).

6. 신라

신라 역시 토우(그림 25, 26)를 포함한 여러 유



〈그림 19〉
합천군 옥전
23호분 출토
금동관

(출처:
한국복식문화-고대
(p. 465) 채금석, 2017.
서울: 경춘사)



〈그림 20〉
합천군 옥전
23호분 출토
금동관 복원

(출처:
한국복식문화-고대
(p. 465) 채금석, 2017.
서울: 경춘사)



〈그림 21〉
일본 구마모토현
에다후나야마
고분 출토 금동관

(출처:
한국복식문화-고대
(p. 465) 채금석, 2017.
서울: 경춘사)



〈그림 22〉
공주 수춘리
II-1호분 출토
금동관

(출처:
한국복식문화-고대
(p. 465) 채금석, 2017.
서울: 경춘사)



〈그림 23〉
공주 수춘리
II-1호분 출토
금동관 복원

(출처:
한국복식문화-고대
(p. 465) 채금석, 2017.
서울: 경춘사)



〈그림 24〉
일본 후쿠이현
주젠노모리 고분
출토 금동관

(출처:
한국복식문화-고대
(p. 465) 채금석, 2017.
서울: 경춘사)



〈그림 25〉
신라 토우 변형 관모

(출처: 한국복식문화-고대
(p. 563) 채금석, 2017. 서울:
경춘사)



〈그림 26〉
고깔모자를 쓴 신라
토우

(출처: 바람타고 흐른 고대
문화의 비밀 (p. 465) 정형진
2011. 서울: 소나무)



〈그림 27〉
경주 천마총 출토
금제관모

(출처: 국립경주박물관소장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632444&cid=426>)



〈그림 28〉 경주
황남대총 출토
은제관모

(출처: 국립경주박물관소장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632442&cid=426>)



〈그림 29〉 경주
금령총 출토 신라
기마인물상 변형모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http://kisslog.tistory.com/m/917>)

물에서 고깔 형태의 관모를 찾아 볼 수 있다. 신라인들이 고깔형 관모를 만드는 재료로는 금(그림 27), 은(그림 28), 금동, 백화수피(白樺樹皮), 비단 등이 있는데, 금속제는 특수 의식용이나 부장용일 가능성이 크다. 〈그림 27, 28〉과 같이 금속제 고깔형 관모는 정수리 주변만을 감싸는 크기로 이는 상투머리를 넣도록 고려한 것일 것이며, 늘어뜨린 끈을 턱 밑에서 묶어 고정하였을 것이다. 황남대, 천마총 등지에서 출토된 변형모 역시 고구려 벽화에서 볼 수 있는 절풍의 형태와 유사하여 삼국 모두 유사한 형태의 변형 관모를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채금석, 2017a).

귀족계급에서는 그들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 절풍에 새 깃털을 꽂은 조우관을 썼으며, 아무 장식도 없는 절풍은 일반 서민이 사용하였다. 특히 절풍은 천민의 관으로는 유일했기에 '천민관'이라고도 불렸다. 절풍의 형태는 변과 같이 삼각형의

고깔 형태이면서 '절(折)'의 의미가 '구부러지다', '꺾이다'를 의미하니, 고깔형 모습이 부분적으로 변화하여 정수리 부분이 둥글거나 각이 진 모습으로 변화된 것으로 짐작된다(채금석, 2017a).

전술한대로 『북사』에 따르면 '절풍형여변(折風形如弁)'이라 하여 절풍은 삼국의 각 지역에서 성행하던 가장 오래된 고깔형 관모로 당의 장희태자(章懷太子) 이현모 벽화의 신라 사신 역시 절풍을 쓰고 있다. 신라의 상급 귀족 기마병을 재현한 금령총에서 출토된 도제기마인물상(그림 29)은 띠와 장식이 둘러진 삼각형의 변형모를 착용하고 있는데 옆모습을 보면 네 가닥의 갓끈을 이용해 턱 밑에서 묶었음을 알 수 있다(채금석, 2017a).

IV. 한국 문화와 종이접기



〈그림 30〉 전주한지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종이옷본

(출처: 문화와 한(韓)디자인 (p. 563) 채금석, 2017. 서울: 학교재)

1. 한국 문화 원형-한(韓)사상과 종이접기

한(韓)민족 사유체계의 근본이 되는 ‘한사상’은 한국 문화의 원형으로 우리 민족의 정신적 뿌리이다. 한사상이란 그리스의 ‘로고스(logos)’, 중국의 ‘도(道)’, 인도의 ‘무(無)’와 같이 한국 민족의 고유한 심성을 대표할 수 있는 말로서 ‘한(韓)’은 한민족의 정신적 바탕이자 뿌리이다. ‘한’의 사전적 의미에 ‘부분多’, ‘전체一’, ‘가운데中’, ‘같음同’, ‘대략畧’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를 포괄하여 ‘비시원적’이라 정의할 수 있다(김상일, 1985). 여기에서 비시원적이란 전후, 좌우, 상하, 내외의 구별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한’의 비시원성은 한국 문화의 특성으로 정의되는 ‘비틀어 돌려 꼬는 띠의 문화’로 연결된다(김상일, 1999; 김윤희, 2003; 운진수, 2010; 이현경, 2008; 전지희, 1998; 정수경, 2005; 채금석, 2017b). 이는 다시 한국의 상징적인 태극으로 표상화되며 따라서 태극은 한국 문화의 원형으로 여기엔 우주를 향한 한국의 마음, 곧 우주-天(하늘), 地(땅), 人(사람)에 깊은 연관을 둔다(채금석, 2017b).

종이접기는 단어 자체의 의미로 종이를 접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내는 기술 혹은 놀이를 의미한다(전철, 2015). 종이접기는 하나의 공예로 접지 혹은 절지(折紙)라는 용어도 있으나 종이접기로 통용되어 사용된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 종이접기에 관해 ‘접지’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종이가 된 갑옷(紙甲)을 만들 때 그 표면에 부착하는 미늘(札)을 만드는 방법을 의미한다.

한국의 접기 문화는 한국인의 과학적 사고를 반영한다. 접기의 시작은 종이가 아닌 직물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전술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 직물을 접어 이용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은 고깔이다(전철, 2015). 고깔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본래 직물을 접어가면서 마름질하게 되어 있다. 한복에서 옷꼴을 만드는 일을 마름질이라 한다. 예부터 옷을 지을 때 본보기로 종이를 오려 옷본을 만들었는데 시집가는 딸이 옷을 지을 때 본보기로 삼게 하거나, 가난한 집에서 옷값을 구입할 방법이 없을 때에는 종이를 접어 옷본을 만들어 혼수 사이에 넣기도 했다(김선호, 김미령, 2008). 조선시대에 종이가 보편화되면서 종이를 접어 만든 옷본(그림 30)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종이접기가 생활 속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의 옷이 옷감이라는 공간에서 도형-패턴을 분리해 만드는 것과 달리 한복은 공간과 도형을 구분하지 않는다. 본래 한복에는 옷꼴, 즉 도형이 없다. 따라서 사각형의 옷감을 접어가면서 마름질하고 이를 휘고 비트는 방식으로 만든다(채금석, 2017b).

한국문화 속 종이접기의 전통은 고깔이나 옷과 같은 복식 이외에도 의례, 민예, 놀이, 생활, 종교 등 생활 전반에 걸쳐 활용되었으며 삼국시대에서 고려,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에는 일부 학자들이 기하학과 분자모형의 활용에서부터 우주정거장 설계에 이르기까지 종이접기를 우주과학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예술 작품 뿐 아니라 과학으로까지 승화시켜나가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종이접기는 단순 놀이가 아닌 예술, 과학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의식과 종이접기

종이는 동양, 특히 한국, 중국, 일본에서 무속(토속)신앙과 함께 불교, 유교, 도교의 종교의식에서 전체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단순히 물질이 아닌 그 이상인 정신적 대상으로 경외(敬畏)시 되어 왔다(이선원, 1998).

1) 신위 - 지방(紙榜)과 종이접기

집안에서 기제사나 차례 때 신주 대용으로 임시로 종이에 시주 내용을 썼던 것을 지방이라고 한다. 지방의 한지를 함 모양으로 접어 가운데 빈 곳에 신위를 써 차례를 지낼 때 사용한 것에서 종이접기의 전통을 엿볼 수 있다(윤영남, 2009). 『가례』 소주에 “형의 집에는 신주를 설치하지만, 동생은 신주를 세우지 못하니 다만 제사 지낼 때만 즉시 신위를 설치하되 지방으로 신위마다 표기하고 제사를 마치면 불사른다.”고 기록되어 있어 지방의 사용 사례를 볼 수 있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 지방은 제사문화가 널리 보급되면서 제사의례를 사회적 관습으로 인정해 정책화를 주도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라는 예법서가 발간된 조선 초기 무렵부터 토착화되었는데(전철, 2015), 조선시대 이전에는 지방이라는 명칭이 아닌 위목(位目)이라고 하였다. 위목은 굿을 하는 법사가 굿이나 독경을 할 때 굿상 앞과 그 주위에 걸어놓는 장식물로 한 해 동안 무탈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 한지에 신령의 이름을 적어 넣어 직사각 형태로 접어 만든 것을 사용하였다(이승범, 2006). 고대사회는 신을 받들고 제사하는 일을 정치의 중심으로 삼으려했던 제정일치 사회였고 종이를 신성한 물질로 여겼기 때문에 이를 신과의 소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김지현, 1994). 따라서 신을 모시기 위한 위목만큼은 종이를 이용하여 접어 세워 만들었다(정명섭, 2011). 무구로 사용되어 왔던 흰 종이는 부족국가 시대에 주술이나 의례 제도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래되면서 함께 전해졌고,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종이 자체를 신성시하는 의미에서 종이를 신과 같은 의미로

‘카미(かみ)’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하였다(전철, 2015)

2) 불교와 종이접기

종이접기와 관련한 불교의식 중 관욕제(灌浴祭)가 있다. 이는 흰 종이를 접은 바지와 치마저고리를 장엄구로 만들어 영가의 죄를 씻어낸 후, 불에 태워 하늘로 올려 보내는 의식으로 불교에서 종교적인 의식용으로 종이접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전철, 2015). 고구려 담징 스님이 일본에 종이를 전파할 때 종이접기도 함께 전해 줬다는 이야기나 통일신라 초기 문무왕 12년(672년) 의상 대사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 앉아 종이를 봉황을 접어 날렸는데, 그 종이 봉황이 내려앉은 자리에 안동 봉정사를 세웠다는 ‘봉정사 창건 설화’(강주형, 2014)를 통해 통일신라 시기 이미 불교와 관련한 종이접기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3. 생활 공예와 종이접기

우리나라는 예부터 얇고 부드럽지만 여러 겹이 중첩되면 화살도 뚫지 못할 정도로 강해지는 한지의 견고성을 이용해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어 왔다(김숙현, 2017). 종이와 발달하면서 이를 응용한 공예품을 만드는 장공인들이 생겨났는데,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고려시대를 비롯해서 조선시대에는 중앙 관청 수공업장에 종이 만드는 장공인인 지장(紙匠)을 비롯하여 종이꽃 만드는 장공인 화장(花匠), 접는 부채 만드는 장공인인 접선장(摺扇匠), 표구하는 장공인인 배접장(楷接匠), 우산을 만드는 장공인인 우산장(雨傘匠) 등이 있었다.

1) 지화(紙花)와 종이접기

지화는 한지를 여러 겹 접어 꽃 모양으로 오려 만든 종이꽃으로 어사화, 꽃상여 민속놀이, 궁내의 행사 등에 쓰였으며, 특히 영혼불멸을 상징한 다하여 종교의례에 많이 쓰여 현대도 큰 굿을 할 때와 같이 무속이나 불교 행사 등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박은주, 2005; 윤순심, 2011). 종이

꽃은 과거부터 길, 흥사 때 생화를 쉽게 구할 수 없어 한지에 물을 들여 만들어서 사용하였는데, 궁중에서는 연향(宴享)할 때 장식용으로 사찰에서는 불교 및 무속의식에서 쓰였다(하진희, 2011). 지화에 대한 기록으로는 고려시대 『고려사(高麗史)』에 궁중에 꽃을 공급하고 장식하는 장인인 화장을 증상서와 상의궁에 소속시켜 갖가지 종이꽃을 만들도록 하고, 왕이 참석하는 연회장을 금종이 꽃으로 호사스럽게 장식했다는 기록이 있다(윤순심, 2011). 또한 조선시대 『전록통고(典錄通考)』에 따르면 제사(祭祀)와 시호(諡號)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던 관청인 봉상사(奉常寺)에도 화장을 두어 궁중연회에 종이꽃을 만들어 장식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종이꽃인 지화 접기는 이미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를 이어 현재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 온 생활 속 종이접기 중 하나이다.

2) 접선과 종이접기

부채에는 납작하고 둥근 모양의 단선(團扇)과 부채살을 이용해 종이를 접었다 펴는 종이접기 기법을 활용한 접선이 있다(팽각비, 2016). 접선이란 접는다는 의미와 부채라는 의미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손에 쥐고 접었다 폄다하여 쥘 부채 혹은 접부채, 합죽선(合竹扇)이라고 한다(연세대학교 박물관, 1995). 우리말 ‘부채’는 고려시대 때 송(宋)의 사신 손목(孫穆)이 고려어를 채록해 편찬한 『계림유사(鷄林類事)』에 ‘부채는 발채이다(扇曰孝采)’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발(孝)은 현재 중국어에서 ‘뽀(Bo)’로 발음하여 현재의 우리 발음과 별반 차이 없음을 알 수 있다(‘부채

의 역사’, 전주한옥마을 부채박물관). 고려의 부채는 당시 중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고려도경』에 따르면 송나라 서궁(徐兢)이 고려의 부채는 반리선(盤螭扇), 쌍리선(雙螭扇), 수화선(繡花扇), 우선(羽扇), 곡개(曲蓋), 청개(靑蓋), 화답선(畫搨扇), 삼선(杉扇), 백접선(白摺扇), 송선(松扇) 등 다양하였고 "고려인들은 부채를 가슴이나 소매에 넣고 다녔는데 사용이 매우 간편했다."라고 하여 고려 부채의 다양한 종류와 편리함과 우수성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 고려 부채는 중국 문인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물산의 하나로 종이를 접었다 폄다할 수 있는 쥘부채의 하나인 백접선은 휴대가 편리해 인기가 높아 그 수요가 많았다(이진한, 2014). 고려 문종30년(1076)대 송나라 곽약허(郭若虛)는 종이로 만든 쥘부채인 접첩선(摺疊扇)을 고려사신에게 선물 받았는데, 그 정교함과 치밀함이 중국의 것은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감탄하였다. 이는 이시기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종이접기가 접선에 널리 사용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서(전주한옥마을부채박물관) 적어도 우리나라 11세기 중반에 종이 접기가 활성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는 원(元)나라 때까지만 해도 접는 부채가 없었고, 명(明, 1368~1644)나라 초기에 이르러 조선에서 접는 부채를 진상함으로써 비로소 중국에도 이 부채가 유행하게 되었는데, 특히 명 태조(太祖, 1328-1398)는 이 부채의 접히고 펴지는 것을 좋아하여 이를 모방해서 만들도록 하고 고려선(高麗扇)이라 불렀다(한국고전번역원). 접을 수 있는 부채를 ‘고려선’이라고 할 정도로 고려의 종이접기를 이용한 접선



〈그림 31〉 쌘지, 조선,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출처: 문화와 한(韓)디자인 (p. 126) 채금석, 2017, 서울: 학교재)



〈그림 32〉 귀주머니,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출처: 문화와 한(韓)디자인 (p. 132) 채금석, 2017, 서울: 학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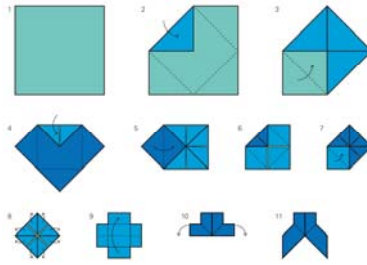


〈그림 33〉 귀주머니,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출처: 문화와 한(韓)디자인 (p. 132) 채금석, 2017, 서울: 학교재)



〈그림 34〉 종이로 만들어 작은 갈피마다 색실을 보관하는 색실첩

(출처: 문화와 한(韓)디자인 (p. 128) 채금석, 2017. 서울: 학교재)



〈그림 35〉 바지저고리 종이접기,

(출처: 문화와 한(韓)디자인 (p. 135) 채금석, 2017. 서울: 학교재)



〈그림 36〉 승려의 고깔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7256&cid=46671&categoryId=46671>)



〈그림 37〉 경주 금령총 출토 신라 기마인물형 토기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44598&cid=58840&categoryId=58851>)

은 중국에서 인기 높은 특산물이었다. 조선 정조 때에는 접선에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궁중화원(宮中花園)을 두어 ‘서화선(書畵扇)’이라는 별도의 명칭이 생길 정도로 접선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유행했다(전철, 2015).

3) 주머니와 종이접기

종이접기는 삼지(그림 31), 주머니(그림 32, 33), 지갑 등 전통 장신구에도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종이를 두들겨 다양한 방식으로 접어 만든 주머니는 우리나라 고유의 장신구의 하나로서, 돈, 담배, 노리개 등 간단한 휴대품을 넣어 허리에 차거나 장식용으로 사용되었다(오재경, 1990).

4) 지혜지(智慧紙)와 종이접기

접히는 방법이 오묘하여 지혜를 키워 준다하여 (김경, 2007) 한 장으로 접은 딱지를 여러 개 연결

한 것을 지혜지라 하는데, 이는 실첩, 색실 상자 등 여러 가지 생활용품에 이용되었다(김숙현, 2017).

실첩(그림 34)은 종이의 쉽게 접히는 점을 이용해 한지를 두겹게 배접하여 골격을 만들어 접어 실이나 형곶조각을 담은 전통 공예품이다. 겉모양은 책 같은 형태로 종이를 크고 작은 형태로 여러 겹 배접하여 접어 만들어 펼치면 칸칸이 열리며 색실을 담을 수 있게 되어 보관이 용이하며 휴대하기가 편리한 장점이 있는데 종이접기를 활용한 디자인이 특징이다(유재선, 1984). 실첩은 사방으로 균형 잡힌 문양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오려 붙이고 접었다 펼칠 수 있도록 방형, 각형의 도형들을 연결하여 수십 칸을 비틀어 돌아가는 형식으로 우주-하늘의 원리를 형상화한 걸작품이다(채금석, 2017b).

전술하였듯이 조선시대에는 옷을 지을 때 종이 옷본(그림 30)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그림 35〉의 바지저고리 종이접기를 보면 먼저 사각형의 종이를 접기 선을 낸 다음 네 귀를 가운데로

접어 맞추고 뒤집는다. 이와 같이 한국문화 속 종이접기는 방향의 종이를 방향, 각형으로 반복적으로 접어가며 2차원의 평면을 비틀어 돌려 접은 후 펼쳤을 때 입체적인 3차원의 공간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V. 한국 고대 고깔과 종이접기

1. 고깔, 종이접기의 원류

고깔은 우리나라 풍속에서 하늘(天), 땅(地), 사람(人)을 가리키는 삼신(三神) 모자로 사용해 온 것으로 전해지는데, 현재까지도 무당, 승려(그림 36), 농악대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하늘과 관련된 의식에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왕길환, 2015). 현재의 고깔은 주로 저마포(苧麻布)나 한지로 만드는데, 이등변삼각형으로 접은 베 조각을 둘로 꺾어 접어서 다시 이등변삼각형이 되게 하고, 터진 두 변에서 밑변만 남기고 다른 변은 붙게 하여 만든다(‘고깔’, 두산백과). 이와 같이 고깔의 형태는 접기로 시작되며 이는 종이접기의 유래와 매우 밀접하다.

우리나라 접기 형태의 원류는 고깔쓰기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중국에 ‘절풍’을 유행시킨 한류의 원조이다(신찬옥, 2016). 고깔(갯갈)이란 전술하였듯이 ‘변(弁)’의 우리말 풀이로서, 그 어원은 첨각·돌출부를 의미하는 ‘갯’과 쓰개를 의미하는 ‘갈’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뾰족한 관모라는 뜻이다(강순제, 전현실, 2002). 따라서 고깔형 관모란 챙이 없고 모체가 뾰족하게 솟은 삼각 형상의 관모이며, 이는 우리나라 관모의 기본형상이기도 하다(윤초희, 2011).

삼한시대 변한(弁韓)은 나라 이름에 고깔을 뜻하는 ‘弁’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는 ‘고깔모자를 쓰는 한인(韓人)’이라는 의미로 나라 이름에 고깔 ‘변’자를 쓸 정도로 우리나라는 부족국가 시대부터 고깔을 많이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김병모, 1998).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고구려의 풍속으로 10월에 지내는 제천행사인 동맹에서 고깔과 같이 생긴 절풍을 쓴다고 하여 고구려인들의 고깔 착용

기록을 볼 수 있다. 또한, 신라나 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토우나 토기에서 보이는 인물의 관모(그림 37)도 관모 윗부분이 뾰족한 고깔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지』에서는 이러한 형상의 관모를 가리켜 변과 같다고 하여 ‘형변(形如弁)’이라 기록하였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고대부터 고깔 착용 풍속을 이어왔는데, 직물 대신 종이를 고깔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종이접기가 대중화되었다. 다만 신령들의 이름을 적어놓는데 사용되는 종이를 만들어진 위목은 신(神)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직물을 거치지 않고 종이를 이용하였으며 고대에 주술이나 의례가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전래되면서 일본에서는 신을 의미하는 ‘가미(かみ)’가 종이로 되었다(전철, 2015).

2. 고깔과 종이접기-토속신앙

한반도의 종이는 우리민족 고유의 독특한 한지 제조기술로 발달하게 되었으며 한지의 우수성과 명성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칭송되고 인정받았다(한국문화정보원, 2015). 한지는 쉽게 모방하지 못하는 독특함으로 송나라 손목이 지은 『계림지(鷄林志)』에 “고려 닥종이는 운택이 나고 흰빛이 좋아서 백추지(白鍾紙)라 부른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품질이 뛰어났다(김지현, 1994). 여기에서 백추지란 결백(潔白)하고 질긴 백면지(白面紙)라는 특징에서 나온 이름이다. 고려시대에는 종이 원료인 닥나무 재배를 제도화하여 민간 제지업을 적극 권장하였고 종이 제조를 관장하는 중앙기관으로서 지소(紙所), 조지부곡(造紙部曲)을 설치하여 종이를 생산하고 나라에 공물을 바쳤다고 한다(김병기, 1982). 특히 고려시대 이후에는 팔만대장경이나 속장경 등 불교 경전의 조판 사업 등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1377) 등이 제작되는 등 출판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한지 생산도 함께 꽃을 피우게 된다. 조선시대에는 국가 차원에서 닥나무 재배를 장려하고 이를 관장하는 기관까지 설립하는 등 종이제작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오늘날의 품질 좋은 최고의 한지로 전승되어 온 것이다(한국문화정보원, 2015). 이렇듯 고대 한국의 종이 제조 기술

은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고종 19년 (1882) 조지서(造紙署)가 폐쇄되고 1901년 용산의 전원국조지소(典園局造紙所)에서 기계로 만든 양지가 제조될 때까지 조선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였다(최태호, 2005).

종이접기는 현실적 효용성 외에도 고대부터 이어져온 전통 공예기법으로 토속신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대인들의 토속신앙은 자연숭배에서 비롯되었는데 자연숭배 속에는 초자연의 힘에 도움을 청하는 정령숭배(精靈崇拜) 신앙이 담겨져 있다. 즉 우주 내의 제상(諸象)이나 물체에는 어디든지 생명이 있으며 생명이 있는 곳에 정령이 있다고 믿는 정령숭배로부터 초자연의 힘에 도움을 청하는 주력관(呪力觀)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홍지나, 2002). 이같이 고대부터 인간은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자는 지극히 높은 천상(天上)에 거주한다고 믿었고 아울러 천신(天神)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박계홍, 1973). 따라서 인간은 하늘과 부단히 가까워지고자 노력하였으며 고대부터 한국의 선조들은 자연의 삼라만상(森羅萬象)을 상징하는 ‘천지인(天地人)’의 삼신을 고깔형태의 모자에 표현하여 이를 머리에 쓰고 하늘에 소원을 빌었다.

즉 고대부터 인간은 하늘과 만나기를 염원하였고, 지상에 있는 인간보다 하늘에 보다 가까운 산과 나무를 신성시하였다. 또한 하늘을 향해 높이 세운 솟대에 하늘 높이 나는 새를 얹으며 부단히 하늘과 가까워지려 노력하였다. 이는 바로 고대의 신수(神樹), 신조(神鳥) 사상의 배경이 된다(채금석, 2017a). 또한, 머리는 인간의 신체 중 가장 높은 곳으로 하늘과 맞닿고 있으며, 발은 땅을 딛고, 인간의 몸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준다고 믿었다. 이는 바로 천지인(天地人)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선조들은 ‘천, 지, 인’의 삼신을 나타내는 고깔형태의 모자를 접어 쓰고 하늘에 소원을 빌었다(왕길환, 2010).

고깔형 모자는 삼한 시대의 편두(褊頭) 풍속과도 연관된다. 동이족은 편두와 같은 두개골 변형술을 통해 새의 영혼에 빙의하여 사람과 하늘을 소통시키려하는 무(巫)였다(김인희, 2007). 이 편두는 새의 형상으로 하늘과의 소통을 의미하고 이를 주관하는 제사장, 즉 우두머리를 상징한다(채금석, 2017a).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면 우두머리를 시키고자 머리를 편편하게 하니 모두 돌로써 머리를 눌렀다고 『삼국지』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삼국지』에 따르면 마한의 남자들은 머리카락을 틀어 올려 묶은 괴두노계, 즉 상투를 하였는데 이에 따라 변과 같은 정수리가 높은 고깔을 착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사각형의 종이를 접어 끝을 뾰족하게 만든 형상은 바로 천지인을 형상화 한 기원의 메신저로 우리나라 종이접기문화의 기원이다(신찬옥, 2016).

다시 말해, 고깔은 하늘, 땅, 사람과 큰 힘, 큰 지혜, 큰 덕을 담은 관식으로서 천지인의 삼재를 의미한다(채금석, 2017b). 이러한 고깔은 아직까지도 불교의식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머리에 고깔을 쓰고, 발에는 버선을 신는데, 그 버선코마저도 하늘을 향하고 있어 한민족의 경천(敬天)사상을 엿볼 수 있다.

Ⅶ. 결론 및 제언

한국문화에서 고깔은 상고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우리 민족의 상징적 표상으로 우리나라 관모의 고유 형태인 변형 관모의 시원이다. 고깔은 직물이나 종이 등을 접어가며 완성되며 여기에서 한국 종이접기의 원류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고깔과 종이접기와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한국 고대 고깔의 역사와 고깔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 살펴본 후 고깔과 함께 다양하게 전승되어 오는 한국 종이접기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그 둘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 목적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깔은 고대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현대에 와서는 그 의미가 끝이 뾰족하게 접어서 만든 모자의 이름으로만 남아 있으며 현재까지도 무당, 승려, 농악대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하늘과 관련된 의식에 주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종이접기 전통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고깔과 한복 뿐 아니라 한국문화 속 의식, 생활 공예, 놀이 등 한국인의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되었으며 고대부터 현재까

지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종이접기는 사각형을 시작으로,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종이 면을 접어 뒤집거나 비틀어 돌리는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비시원적인 한국 고유의 사상체계를 표현한다. 이는 고대부터 우주를 표상화 한 조형 기법으로 면을 휘고, 꼬고, 비틀어 전후, 좌우, 상하도 없는 비정형적 성격을 다루는 현대 과학의 비유클리드 기하학적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고깔은 우리나라의 풍속에서 하늘, 땅, 사람을 가리키는 삼신 모자로 사용해 온 것으로 전해지는데, 고깔의 형태는 접어가면서 만들어지며 따라서 이는 한국 전통공예인 종이접기의 유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의 종이접기는 고대부터 이어져온 토속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대인들의 토속신앙은 자연숭배에서 비롯되었으며 초자연의 힘에 도움을 청하는 정령숭배로부터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자는 높은 천상에 거주한다고 믿어 인간은 하늘과 부단히 가까워지고자 하였다. 따라서 고대부터 한국의 선조들은 자연의 삼라만상을 상징하는 ‘천지인’의 삼신을 고깔형태로 접어 모자를 만들어 머리에 쓰고 하늘에 소원을 빌었다.

이를 통해 한국 상고시대부터 전해 온 고깔과 종이접기 문화에 내재된 사유체계가 얼마나 과학적인가를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순재, 전현실. (2002) 고깔형 관모에 관한 연구. *복식* 52(1), 117-128.
- 강주형. (2014. 10. 01). ‘日 오리가미 원류는 고구려 담장이 전한 종이접기’. 한국일보. 자료검색일 2018. 6. 10, 자료출처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410012088310382>
- 고깔. 두산백과. 자료검색일 2018. 6. 8, 자료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61263&cid=40942&categoryId=31543>
- 고려선(高麗扇). 한국고전번역원. 자료검색일 2017. 5. 10, 자료출처 <http://db.itkc.or.kr/dir/>
- 고하수. (1997). *한국의 美, 그 원류를 찾아서*. 서울: 하수출판사.
- 국사편찬위원회. (2006).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서울: 두산동아.
- 권일찬. (2012). *동양학원론*. 파주: 한국학술정보.
- 김경. (2007). *이야기가 있는 종이 박물관*. 파주: 김영사.
- 김광순. (2006). *한국구비문학-경북 고령군편*.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 김민자. (2013).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제다움 찾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병기. (1982). *韓國科學史*. 서울: 이우출판사.
- 김병모. (1998). *금관의 비밀*. 서울: 푸른역사.
- 김상일. (1999). *초공간과 한국문화*. 서울: 교학연구사.
- 김상일. (1985). *한철학*. 서울: 전방사.
- 김선호, 김미령. (2008). *옷본*. 서울: 동문선.
- 김소현. (2003). *실�크로드의 복식 호부*. 서울: 민속원.
- 김숙현. (2017). *종이접기의 조형미를 적용한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란. (2017). *전통한지공예기법을 활용한 지화공예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2003). *‘뒤집기’와 ‘비틀림’ 공간의 중첩을 적용한 건축경관 프로젝트 : 버선 제작 과정 분석의 응용*.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1994). *현대 섬유미술에 있어서의 종이작업에 관한 연구: 한국의 종이작업을 중심으로*.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구. (1995). 고깔의 比較 言語學的 研究. *복식문화 연구*, 6(2), 193-199.
- 류은주 외. (2003). *모발학 사진*. 서울: 광문각.
- 박계홍. (1973). *한국 민속연구*. 파주: 형설출판사.
- 박선희. (2006). *한국고대복식*. 파주: 지식산업사.
- 박은주. (2005). *조선후기 造花의 유형과 변천 : 絳花와 紙花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성림. (2012). *종이 이야기 : 우리의 삶 그 자체인 종이의 역사*. 서울: 국립산림과학원.
- 신찬옥. (2016. 01. 03). *세계인이 ‘Jongie Juggi’ 말할 날 꿈꿔요*. 매일경제 & mk.co.kr. 자료검색일 2018. 6. 4, 자료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no=3843&year=2016>.
- 안재은. (2009). *고딕 시대 건축의 퍼펜디큘러(Perpendicular)양식의 조형성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진숙. (2005). *조선시대 관모사진*. 서울: 화산문화.
- 오재경. (1990). *종이접기 교실*. 서울: 한국종이접기협회.

- 왕길환. (2010. 09. 10). 종이접기 세계화하는 노영혜씨. 연합뉴스. 자료검색일 2018. 6. 10,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650511>
- 왕길환. (2015. 01. 26). 고깔은 종이접기 모태...세계에 유구한 역사 알리자. 연합뉴스. 자료검색일 2018. 6. 10, 자료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26/0200000000AKR20150126109500371.HTML>
- 왕길환. (2017. 11. 11). 한국 종이접기 원류는 고깔...역사, 일본보다 앞서. 연합뉴스. 자료검색일 2018. 6. 10, 자료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1/0200000000AKR201711111036700371.HTML?input=1195m>
- 우리 부채의 역사와 특징. 전주한옥마을 부채박물관. 자료검색일 2017. 5. 10, 자료출처 http://fanmuseum.co.kr/bbs/content.php?ct_id=6&cate_id=103010
- 운진수. (2010). 상모춤의 미적 탐색,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재선. (1984). 조선조 민예품에 나타난 실첩 실상자의 조형적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순심. (2011). 우리나라 지장(紙張)공예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남. (2009). 종이조형 활동의 창의성 발달에 관한 연구: 유아기의 종이접기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초희. (2011). 미용 관련 속담 연구.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원. (1998). 한지조형의 미학 I, 한국의 민속과 문화, 1, 191-211
- 이승변. (2006). 충청지역의 종이무구(瓦具) : 충남 태안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13, 45-70.
- 이승철. (2005). 우리 한지, 서울: 현암사.
- 이영미. (2004). 한국 전통건축의 공간해석을 위한 존재론적 접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진한. (2014). 고려시대 무역과 바다. 서울: 경인문화사.
- 이현경. (2008). 한국 고분미술의 곡선미 만족자질비 구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석재. (2006). 서양건축사하늘과 인간. 서울: 북하우스.
- 임영자, 박미자. (1996). 한복에 나타난 위상기하학적 구성에 관한 연구. 복식, 30, 69-84.
- 전지희. (1998). 전통건축공간의 위상기하학적 분석과 공간디자인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철. (2015). 우리나라 종이접기 공예품에 대한 역사적 고찰. 펄프·종이기술, 47(4), 168-176.
- 정명섭. (2011). 한국민속 신앙사전 - 무속신앙 1.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정수경. (2005). 전통 조형물에 적용된 바시미 구조를 응용한 디자인 연구 : 해체주의 이론적 접근.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홍수. (2012). 서양복식문화사. 경기: 교문사.
-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2000a).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고구려편.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2000b).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I-고구려편.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준영. (2005). 한국 전통음악 오선보 표기에 대한 철학적 연구: 기하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종이접기. 두산백과. 자료검색일 2018. 5. 10, 자료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76422&cid=40942&categoryId=33065>
- 채금석. (2012). 세계화를 위한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파주: 지구문화사.
- 채금석. (2017a). 한국복식문화고대. 서울: 경춘사.
- 채금석. (2017b). 문화와 한디자인. 서울: 학교재.
- 최민자. (2006). 천부경.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 최태호. (2005). 환경친화적인 한지 및 산업의 조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검색일 2018. 6. 10, 자료출처 https://www.kcti.re.kr/web_main.dmw?method=view&contentSeq=3844
- 팽각비. (2016). 한·중 부채춤에 나타난 선문화(扇文化)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진희. (2011). 교육을 통한 한지공예 활성화 방안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문화정보원. (2015. 6. 11). 종이전래과정. 한국문화정보원. 자료검색일 2017. 5. 10, 자료출처 http://www.kculture.or.kr/korean/hanstyle/hanstyleView.jsp?pt_seq=1341
- 홍지나. (2002). 관모(冠帽)의 상징성을 형상화한 섬유조형 연구 : 직조(Weaving) 작품 제작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